

슈퍼루키 문동주 마무리캠프 합류 한화 수베로 감독 “알아가고 싶다”

새 시즌은 한해 전 마무리캠프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시즌 강행군을 소화한 선수들은 몸을 다시 만들어야 하며, 기회를 받지 못한 이들은 사령탑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기대 가득한 신인들 역시 같은 입장. 2022년 한화 이글스 1차지명자 문동주(18·광주진흥고)의 합류에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문동주

수베로 감독은 27일 대전 LG 트윈스전에 앞서 마무리캠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대전과 서산을 오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1군에 꾸준히 머물렀음에도 타석이나 이닝이 부족했던 이들은 2군으로 합류해 경기감각을 끌어올린다. 반면 시즌 내내 경기를 소화한 이들은 기술훈련보다는 컨디션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날(26일) 시즌 마지막 등판을 한 투수 김민우(26)가 대표적 사례다. 수베로 감독은 “올해 선발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비시즌 동안 컨디션닝 파트를 조금 더 개선할 생각이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몸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퍼루키’ 문동주의 합류도 언급했다. 수베로 감독은 “가능하면 합류시킬 것”이라며 “1군 마무리캠프에 합류한다고 해서 변화를 주거나 뭔가를 건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하고 알고 싶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동주를 비롯한 투수들의 세부 스케줄은 호세 로사도 투수코치의 플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문동주는 키 188cm, 몸무게 92kg의 큼직한 하드웨어를 자랑한다. 당초 김도영(광주동성고·KIA 타이거즈 1차지명)과 더불어 KIA의 1차지명 후보로 꼽혔다. 연구 지명권을 가진 KIA가 김도영을 택하자, 전국단위 지명이 가능했던 한화가 문동주를 품었다. 5억 원의 계약금을 안겨줬을 만큼 한화의 기대는 크다.

대전 | 최혁재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최혁재 기자 hk7049@donga.com

시행착오 끝 유종의 미를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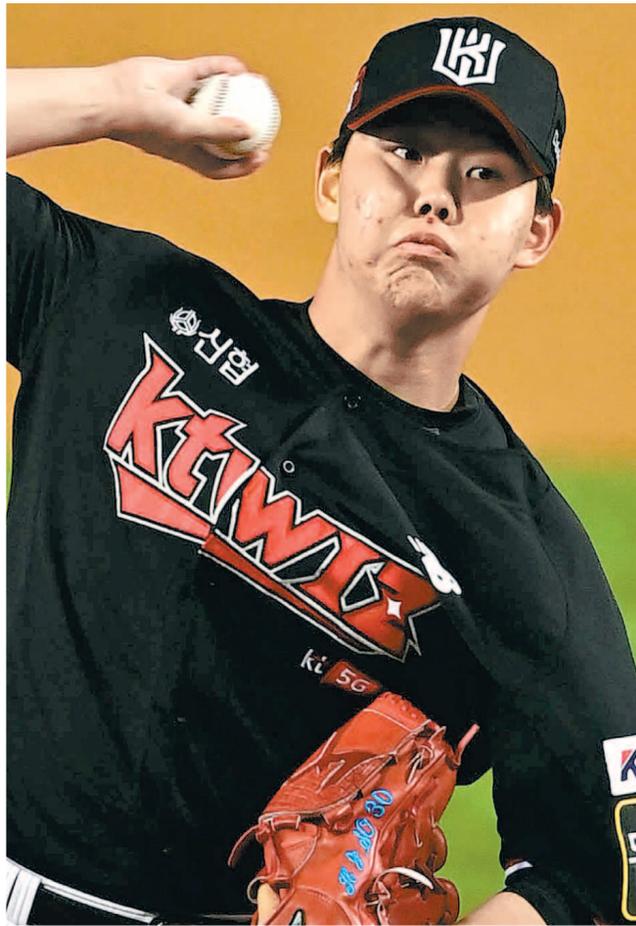
10월 부활...2년차 징크스 지우는 소형준

시즌 개막후 2군행-5월 복귀 부진 심한 기복 6월도 깜짝반등에 그쳐 10월 3G 2차례QS 감 되찾은 모습 지난해 PO 1차전처럼 활약 기대

KT 위즈 우완투수 소형준(20)이 2년차 징크스를 딛고 유종의 미를 꿈꾼다. 소형준은 올 시즌 23경기에 선발등판해 6승7패, 평균자책점(ERA) 4.18을 기록 중이다. 고졸 신인으로 26경기에서 13승6패, ERA 3.86으로 신인왕을 차지하고, 팀 창단 이후 처음 진출한 플레이오프(PO)에서 1차전 선발을 맡았던 지난해와는 꽤 차이가 크다. 하지만 10월 들어 3경기에 등판해서는 2차례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작성하는 등 18.1이닝 동안 5자책점만 기록하며 ERA 2.45로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화려하게 데뷔한 그도 2년차 징크스를 완전히 피해갈 수 없었다. 큰 기대 속에 올 시즌 개막을 맞았지만 3경기에 선발등판한 뒤 2군으로 내려가 조정기를 가졌다. 5월초 복귀해서도 4경기에서 2패, ERA 7.50로 부진했다. 호투한 경기도 있었지만 급격히 무너지기도 했다. 6월 깜짝 반등에 성공하며 페이스를 되찾은 듯했으나, 기복 속에 힘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구위로 타자들을 상대했던 소형준이



부침을 거듭하자 많은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팀에서 내린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다. 지난해 많은 투구로 체력적 문제가 드러났거나, 구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마운드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투구하면서 타자와 적극적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게 KT 이강철 감독의 판단이었다. 변화구 구사를 늘린 탓에 볼이 늘어났고,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던진 공이 정타로 이어진 비율이 높아져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자신감이 하락하자 소형준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팀의 기대대로 시즌 막판 지난해와 같은 모습을 회복했다. 올 시즌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꾸준히 선발로 나서며 해법을 찾았다는 점은 KT로서 고무적이다. 소형준은 팀의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선발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투수다.

소형준은 잔여경기에서 한 차례 더 마운드에 오를 전망이다. 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할 만큼 가을잔치에서도 등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난해 PO 1차전처럼 큰 무대에서도 힘을 발휘할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지난해 신인상을 차지한 KT 소형준은 올해 2년차 징크스로 고전했지만, 시즌 막판 반등에 성공했다. 꾸준한 선발로 나서며 해법을 찾는 점이 고무적이다.

스포츠동아DB

박진형·윤성빈 입대 예정...롯데 ‘군 테크’ 박차

2020년 이후 입대 신입금 선수들부터 올해 입대 손성빈 등 19세 선수도 지원 국방의무 후 복귀...팀 주축 양성 포석

국제대회에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한정된 극소수다. 자연히 군 입대와 관련된 구단의 머리싸움과 장기적 플랜이 중요해진다. 롯데 자이언츠는 올 시즌 후 젊은 선수들을 데려 입대시킬 계획이다. 빠르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뒤 복귀해 팀의 주축으로 성장해줄 바라는 장기 포



박진형

윤성빈

석에서다. 롯데 투수 박진형(27)과 윤성빈(22)은 올 겨울 입대 예정이다. 2017년 1차지명자

윤성빈은 최고 150km/d 중반의 속구를 갖고 있음에도 아직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했다. 1군 통산 성적은 20경기에서 평균자책점(ERA) 6.75. 2013년 입단한 박진형은 2017년과 2020년 두 자릿수 홀드를 달성하는 등 기대를 모았으나 올해는 22경기에서 2승1패, ERA 5.44로 고전했다.

박진형과 윤성빈을 제외한 입대 예정자들은 모두 1군 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피들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입단한 신입금들이 대부분이다. 올해 대졸 육성선수로 입단해 2군 내야를 책임졌던 최중은(23), 이주찬(23)은 물론 올해 고졸신인 이병준(19), 최우인(19), 우강훈(19)도 입대한다. 여기에 2020년 입단한 홍민기(20), 박명현

(20)과 3년차 김동규(22)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다.

이뿐이 아니다. 손성빈(19), 나승엽(19), 송재영(19), 정우준(21) 등 올해 입단한 다른 신인들도 상무 야구단에 원서를 넣었다. 상무합격 여부에 따라 최근 2년 사이 입단한 신인 11명이 한꺼번에 군대로 향할 수 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에는 아직 미필 선수들이 많다. 군 입대 대기자가 많아 터더욱 꼬이는 상황이다. 입대 후 첫 시즌을 소화한 뒤 바로 군에 입대하는 것이 최상의 플랜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뒤 복귀하면 커리어에 심포가 찍히지 않고 야구에 전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혁재 기자 ing17@donga.com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고소한 검은콩&고칼슘 두유 / 고소한 아몬드&잣 두유

2021 IIT 국제식품유품평회(International Taste Institute)에는 연세두유는 '국제 우수 미각상(Superior Taste Award)'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IIT 국제식품유품평회는 200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설립된 식품 품질평가 기관인 '국제식품유품평회 (IIT International Taste Institute)'에서 매년 진행되는 행사다. 매년 전 세계에서 출품된 식품들을 세계 유명 셰프와 소믈리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까다롭게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연세유업 식품과학위원회



전 의과대학 교수 실준희 연세대 원 이사

전 생활과학대학 교수 양말선 연세대 원 이사

과학기술대학 윤성식 교수

생명시스템대학 황재관 교수

1팩당 500원대! 국내 최저가 판매!



고소한 검은콩&고칼슘 두유

칼슘강화에 고소한 맛까지

영양이 풍부한 검은콩 농축액에 칼슘을 강화하여 더욱 고소하고 맛있는 두유입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각종 비타민 함유

가족 건강을 위한 각종 비타민A 60ug RE(19%) 비타민B1(0.22mg (18%)), 비타민D3 2ug RE(40%) 비타민E 1.3mg-a TE 함유

국내 두유업체 최초 HACCP 지정업체 연세두유

철저한 원재료 관리와 까다로운 생산과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고소한 아몬드&잣 두유

각종 견과류로 고소한 맛을 더한 두유

아몬드, 잣, 땅콩이 들어있어 더욱 고소하고 견과류의 영양을 더한 두유입니다.

고소한 아몬드&잣

고소한 아몬드&잣의 풍미를 비타민A, 비타민B1, L-카르니틴을 더해 두유에 부족한 칼슘을 강화한 두유

국내 두유업체 최초 HACCP 지정업체 연세두유

철저한 원재료 관리와 까다로운 생산과정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상온에서도 안전하고 신선한 무균팩의 비밀!

무균 포장으로 신선하게!

무균(아세트) 포장 기술로 두유를 담은 동안 공기나 세균이 용기에 닿지 않도록 무균상태 유지

6겹 포장으로 안전하게!

6겹 무균 종이팩이 빛과 공기를 차단해 방부제나 첨가제 없이도 장기간 상온에서 안전하게 신선하게 보관 가능

연세두유 검은콩 고칼슘 두유 52팩 + 아몬드 잣 두유 52팩(총 104팩) 59,900원

www.더드림365.com

문의 1800-6639

입금계좌 <농협> 301-0236-7453-61 (주)더드림소프

<신용카드 무이자 5개월 가능> <택배비 3,000원 소비자 부담>